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제318호 【루계 제25096호】 주체104(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 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새 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공사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오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식료일용공업상 조영철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는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특별히 중시하는 공장, 온 나라 어머니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련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불과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십여개 대상의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를 끝내였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옳은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답게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멋쟁이공장, 우리가 결심하면 못해내는것이 없다는것을 확증해주는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새로 모신 모자이크벽화 《어린이식료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해갈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말 잘 모시였다고 하시면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977년에 일떠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온 나라 아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을 길이 전할수 있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가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다른 단위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까지 최량화, 최적화할수 있는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자랑할만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한 결과 로동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생산현장의 모든 요소요소를 무균화, 무진화하였으며 품질검사를 엄격하게 할수 있도록 종합분석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지난 한해동안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만족시키는 여러가지 새 제품을 개발하였을뿐만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구매자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게 상품도안과 포장에서도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수천t능력의 콩싹이로도 훌륭히 건설하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1년분에 해당되는 원자재를 충분히 장만해놓았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은 물론 문화후생시설들도 손색없이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가 정말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한해사이에 방대한 공장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은것은 우리의 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불굴의 정신력,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국산화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설비현대화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당이 바라는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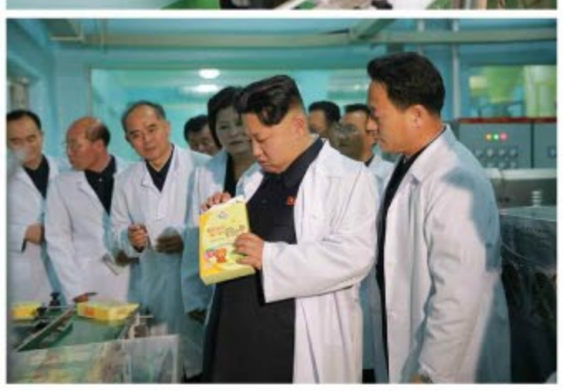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무조건 우리 식으로 해내려는 립장과 관점을 기둥처럼 세우고 국산화실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업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속에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일군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따라배우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것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밝고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콩우유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일터에 뜨거운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자애로운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핵심골간양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군사학교들에서 군사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며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나라의 군사교육체계를 완비하며 군사교육혁명을 일으킬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가로 키울것을 호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사학교 교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용사들의 붉은 피처럼 고결하고 천길바다속에서 찾아낸 진주보석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사학교 교원들을 금방석에 앉혀 누구나 부러워하게 만들고싶다고 지적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 참석하시여 연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사교육사업은 인민군대의 핵심골간들을 키워내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며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할데 대해 말씀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보도망, 국제방송망,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싼마통신, 세네갈신문 《러 뽀뿔래르》,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연변일보》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 보신 소식을, 중국의 《흑룡강신문》, 네팔신문 《아르판》과 나이제리아의 인터네트홈페지는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 민주꽁고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한편 벨가리아조선친선협회 불레전 11월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신 소식, 김종태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신 소식을 실었다.

본사기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가 진행된다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가 11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40돐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표대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인민경제 각 부문의 공장, 기업소, 농장 3대혁명기수들과 선군시대 공로자들,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참가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온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는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마련하여주신 주체적대중운동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기념 연구토론회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기념 연구토론회가 1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녀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마련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해설론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들을 밝힌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강화발전된 주체의 혁명적녀성운동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된 주체의 혁명적녀성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녀성운동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북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조선민주녀성동맹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투쟁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녀성동맹을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전투조직,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녀성동맹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중요한 업적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이 녀성들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녀성동맹은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아로새기며 명실공히 주체의 혁명적녀성조직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근로단체출판사 주필 주종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녀성동맹을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인 녀성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여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동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녀성동맹이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임무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맹해설대와 녀맹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당정책선전활동을 기동성있고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주시고 녀성동맹을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힘있는 력량으로 키워주시였다.

녀성동맹을 오직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의 선군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조직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백미화가 토론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녀성동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동맹사업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 수령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성동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의도에 맞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맹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심혈을 바치고계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에서 녀맹을 중시하고 녀맹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은 사회의 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을 잘 교양하는 문제가 중요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녀맹사업에서 기본은 교양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녀성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성동맹이 강성국가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한몫 하도록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우리 녀성들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남포시녀맹위원장 정명현은 《녀성동맹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녀성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녀성동맹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적녀성정치조직으로 만드는것은 녀성동맹이 당의 외곽단체, 인전대, 믿음직한 방조자로서의 사명과 임무,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모든 녀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마련된 주체적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녀성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한다.

녀맹조직들에서 녀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녀맹원들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녀맹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녀맹일군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언제나 녀맹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이 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토론자들은 전체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사업성과로 맞이하며 녀성동맹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회고 몽골위원회 결성식이 3일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결성식장에 모셔져있었다.

결성식에는 몽골의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를 높이 칭송하며 널리 소개선전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회고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대원수회고 민주꽁고위원회 결성식이 6일 킨샤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헤껠레 깔론다가, 부위원장으로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인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오떼떼 가스똥 음보요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머지않아 진보적인류는 세계자주화위업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의 서거 4돐을 맞이하게 된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사회주의조선의 강화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현실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회고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회고 방글라데슈위원회가 방글라데슈의 진보적정당들과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조직들의 공동주최로 8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용항공 및 관광상 라쉐드 칸 메논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철령아래 청춘과원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고산과수종합농장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618건설돌격대에서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벌린 공격전

평안북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길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평안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열의밑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다음해 전투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당 제7차대회에 로력적선물로 드릴 새 대상건설을 동시에 내미는것이 이들이 세운 목표이다.

이들앞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애로와 난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군들은 전투승리를 확신하고있다.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벌리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일군들은 그 진리를 뼈에 조아박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방법론상에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일군들은 새 전투목표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토론을 거듭하였다.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야 하는것만큼 그 성과를 담보할수 있는 신통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일감이 방대한데 비해 로력과 설비가 긴장하다보니 그 방도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일군들이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할 때 정치부장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철령아래까지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올 때 파연 모든 조건이 원만했던가. 아니다. 우리는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위훈의 탑을 쌓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일군들의 마음은 승엄해졌다.

백두산, 성스러운 그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고귀한 창조정신으로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 영웅청년신화창조자들의 청년돌격정신도 결국은 백두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둔것이 아닌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에 조아박고 애국충정을 다할 때 우리도 그들처럼 당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결사관철할수 있다.

려단장 손명원동무는 이것을 확신하며 새 전투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시간을 최대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우선 자재준비를 선행시키자는것이였다.

10월계획을 수행하고 당 제7차대회를 소집하게 된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했을 때 려단앞에는 다음달과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공사방향은 명백한것만큼 그에 필요한 일부 자재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새탈전투가 시작되였을 때 로력과 설비의 긴장성을 얼마든지 풀수 있었다.

이로부터 려단장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나선 일군들은 지체없이 이 사업을 내밀었다. 결과 대대, 중대들에서는 불과 며칠사이에 다음전투에 필요한 수백㎥의 깬돌과 1000여㎥의 모래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재준비를 할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전망도 열리였다.

일단 세운 목표는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

일군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니 그 수행방도가 련속 나왔다.

시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자재준비를 선행시킨 이들은 뜻깊은 당대회에 로력적 선물로 드릴 새 대상건설에 남먼저 착수하기 위해 현지에 나갔다. 수천㎡의 건설부지를 돌아보던 그때 이들에게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건설부지에서 일정한 두께의 흙층을 들어내면 그밑에는 암반이였다. 그것을 까낼 때 나오는 돌을 버럭으로 처리하지 말고 회수리용하면 당면한 전투는 물론 다음해공사에 필요한 막돌까지도 적지 않게 해결하면서 새 대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이것을 타산한 이들은 즉시 전투조직을 하였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 문제의 하나가 로력조직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것이였다.

려단에는 시, 군대대들과 공장, 기업소중대들을 다 합하여 60여개의 단위가 있다. 지휘부의 제한된 인원으로 그 많은 단위들에 대한 시공지도를 하는데서 애로가 있었다.

대대, 중대들이 맡은 대상에 따라 사방 분산되여 일할 때면 단위별로 자재공급을 하는데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특히 단위마다 로력과 설비, 기능공준비상태가 각이하다보니 작업수행결과도 다르고 따라서 려단의 전반적인 전투성과도 높일수 없었다. 이 사실을 결코 실무적으로 대할수 없었다.

높은 실적은 려단의 명예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에서의 성과를 위해 필요한것이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 려단의 로력조직방법과 전투방식을 실정에 맞게 혁신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이들은 우선 대대, 중대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려단력량을 세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매 집단에는 대대, 중대들을 능력에 맞게 골고루 소속시켰다.

지휘부는 집단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과업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총화하는 사업질서를 세웠다. 자재공급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집단들에서는 소속된 대대, 중대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기본전투력량과 보조력량을 편성하였다. 보조력량이 지대정리, 기초파기와 같은 공정들을 선행시키면 기능공들이 집중된 기본력량이 미장을 비롯한 기술작업들을 제빨리 따라세우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였다.

실정에 맞는 방법을 받아들여 전투조직과 지휘의 신속성, 정확성으로부터 자재공급에서의 편리성까지 보장되게 되자 려단의 공사실적은 눈에 뜨이게 높아졌다.

이 성과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와 살에 조아박고 당의 호소따라 오직 곧바로만 달려나가려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이 안아온 필연적인 결실이다.

함경북도려단에서

어머니 당을 위하여

영광의 5월을 향해 가는 오늘의 하루하루를 평범한 날의 열흘, 백날맞잡이로 여기고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

이것은 함경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 끓어번지는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현장지휘부에서 당 제7차대회에 로력적선물로 드릴 새 대상건설 작전을 펼쳤을 때였다.

이 사실은 돌격대원들을 크게 흥분시켰다. 뜻깊은 당대회를 맞으며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들의 가슴을 높뛰게 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전투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려단앞에는 새 대상건설을 위해 100여m의 도로건설, 수천㎡의 지대정리, 막돌과 모래채취 및 운반 등의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이미 건설하던 과일보관고설비조립, 새로 꾸린 공공건물들에 대한 외장재칠하기를 비롯하여 종전에 해오던 일들도 결속하여야 했다. 이렇게 근 10가지 작업과제를 다같이 밀고나가자니 로력이 매우 긴장했다.

하지만 일군들은 사소한 주저나 동요를 몰랐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쳐나가고있다. 심장으로 그 만짐의 무게를 달아보면 아마도 지구의 무게를 훨씬 릉가할것이다. 이렇듯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어머니 우리 당의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도리이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지혜를 합쳐 실정에 맞는 방도를 찾았다.

로력의 긴장성을 풀자면 무엇보다 설비리용률을 높여야 했다. 려단에는 굴착기, 불도젤, 화물자동차와 같은 설비들이 있다. 이것을 만가동시키자면 부속품, 연유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했다.

려단정치부장이 이 어려운 일을 전적으로 맡아나섰다. 그는 필요하다면 하루밤에 수백리를 달려 긴요한 설비자재들을 구입해오는 인수원으로도 될 각오밑에 밥잠을 잊고 발이 닳도록 뛰며 중량설비들의 만가동준비를 빈틈없이 갖출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기계수단으로 흙깎기, 성토를 하며 지대정리를 단숨에 해제낄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파일보관고설비조립과 외장재칠하기에 동원된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도록 한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 작업은 자재와 설비가 들어오는데 따라 진행해야 할 작업이다.

매일 련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것만큼 그 로력을 깬돌생산을 비롯한 다른 작업에 동원시키며 정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여러가지 과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 전투전에 승리를 담보해놓고 우리의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폭풍쳐 내달리며 충정의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세찬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불변의 침로따라 폭풍처럼

황해북도려단 황해제철련합기업소대대와 황주군대대에서

당정책옹위전의 길, 이것은 황해북도려단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황주군대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정한 침로이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힘있게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대대가 어느 한 지역에서 한달동안에 100여m의 배수로를 형성하며 암거를 설치할데 대한 과업을 맡았을 때였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오래동안 다른 일을 하다보니 이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 암거설치구간에는 굳은 암반이 깔려있었다. 물론 그곳을 에돌면 일은 헐하게 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의 변침을 의미했다.

우리야 강철기둥으로 당을 받들어온 황철로동계급이 아닌가. 강철처럼 굳센 의지로 당정책옹위전을 벌릴 때 못해낼 일이 없다.

대대정치지도원의 이런 불같은 호소가 그대로 전투시작신호로 되여 공사가 벌어졌다.

주변에 살림집들이 있어 발파를 할수 없으므로 이들은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까냈다. 땀방울을 떨구며 함마로 힘껏 내리치도 겨우 한줌각씩 떨어지는 암반극복전투가 한창일 때 앞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소대장이 그만 부상을 당하게 되였다. 더는 함마질을 할수 없게 된 그는 대원들의 거듭되는 만류도 뿌리치고 정대를 들어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정책옹위전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가 어려있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모두가 그런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비가 오면 흙마대를 쌓아 물길을 돌리고 비옷을 덮어 작업장을 보호하며 두 대상공사를 완강히 내밀었다.

그리하여 일정계획을 절반 앞당겨 공사를 끝내는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하였다.

이들이 새 전투장으로 향할 때 황주군대대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있었다.

당시 대대에서는 여러동의 공공건물을 더 잘 꾸리는 공사가 진행되고있었다. 그 한동한동이 이전에 맡아 꾸리던 살림집보다 훨씬 더 큰데 종전의 로력으로 다른 대대들과 같은 기간에 끝내야 하였다.

결코 헐치 않은 과업이였지만 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그것을 놓고 흥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이 받은 과업, 여기에는 철령아래 고산땅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려는 당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기때문이였다.

당의 사상관철전에서는 사소한 에누리도 있을수 없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런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결사전을 벌리였다. 대대의 핵심인 기술소대원들은 종전에 비해 일감이 몇배로 늘어난데 맞게 그 전처럼 벽체전면미장과 장식미장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동시에 내미는 등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작업능률을 부쩍 올리였다.

당의 시공의 전문화방침실현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손에 미장칼을 잡고 여러명의 기능공을 양성한 대대장, 한 기능공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것을 알고 수백리길을 다녀와 그의 얼굴에 밝은 웃음꽃을 피워준 대대정치지도원, 당조직의 뜨거운 방조에서 큰 힘을 얻으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내달려 다른 대대에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돌격대원들…

우리의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폭풍처 내달릴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오직 당이 가리키는 길밖에 모르는 이들이 려단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업을 가장 원만히 수행한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자강도려단 시중군대대는 고산과수종합농장능력확장공사에 참가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오래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다보니 그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첫 대상공사에서부터 단연 두각을 나타내였다. 이것은 사상전의 위력으로 안아온 기적적인 성과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혁명과업수행에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합니다.》

대대가 고산땅으로 이동하게 되였을 때였다. 일군들에게는 은근히 걱정이 생겼다. 새 전투장에 가서 경험도 없이 다른 대대들처럼 성과를 올릴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일부 일군들은 뭐니뭐니해도 공구가 좋아야 일도 잘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준비부터 갖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치지도원 김영진동무의 립장은 달랐다.

물론 작업공구준비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것은 사람이다. 돌격대원들을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과 같은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시킬 때 새 전투장에서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수행할수 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

여기에 력점을 찍으면서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군들은 활기를 띠였다. 전투전에 승리를 마련하는데서 중심고리를 바로 찾은 이들은 려단정치부와의 련계밑에 현장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여기에 기초하여 붉은기와 현장속보판, 증폭기 등을 새로 마련하며 사상전을 강력히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선행시켰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일군들은 전투시작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로정에 대한 참관조직을 하였다. 그것은 큰 실효를 나타냈다.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망대에서 전경을 부감하시며 철령아래에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펴나고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거듭 외우신 그 인민들가운데 우리도 있다. 바로 우리들자신의 행복을 창조하는 일에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며 이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돌격대원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하게 하자면 그들의 심장에 타오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백두의 칼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야 한다.

일군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기 위해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대대가 맡은 대상공사장은 다른데보다 작업조건이 불리하였다. 실례로 작업장으로 륜전기재가 들어올수 없어 자재를 일정한 장소에 실어온 다음 돌격대원들이 날라들여야 했다.

다른 단위보다 더 힘든 전투를 하게 된 조건에 맞게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정치사업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어느날 야간전투를 할 때였다. 공사가 시작된 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련일 전투를 벌려온 돌격대원들은 어지간히 지쳐있었다.

이런 때에는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정치지도원은 작업장에 증폭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서 울려나온 당에 대한 흠모의 노래, 조국에 대한 찬가, 혁명군가를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은 작업장의 분위기를 대번에 일신시켰다.

돌격대원들은 언제 지쳤던가 싶게 어깨를 들썩이며 작업속도를 부쩍 높여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몇백마디의 선동연설을 한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던것이다.

어려운 모퉁이에 먼저 몸을 내대는것으로 돌격구령을 대신하고 대상공사와 함께 돌격대원들의 숙소를 꾸리는 사업을 놓치지 않았을뿐아니라 너성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돌린 일군들…

돌격대원들은 이들의 모습에서 어머니 우리 당의 정다운 손길을 느끼며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대상공사수행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 기세로 영광의 5월을 향하여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우승의 영예를 안아온 비결

자강도려단 시중군대대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중앙산업미술전시회 폐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6일에 개막되였던 중앙산업미술전시회가 폐막되였다.

전시회기간 성, 중앙기관과 각지 산업미술부문의 일군들, 창작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관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주체적산업미술발전에 쌓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우리의 산업미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폐막식이 12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산업미술부문 창작가, 교원, 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임철웅내각부총리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번 전시회가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시된 작품들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광명한 미래에로 끝없이 비약하는 강성조선의 휘황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날로 발전하는 주체산업미술의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산업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새로운 창작기법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인민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심이 담긴 특색있는 도안들을 더 많이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높은 창작성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2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

제12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국가나노기술국,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교육위원회,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박사원생 등이 참가하였다.

나노리론, 측정, 전기분과, 나노재료, 공구, 기계분과, 나노의학, 농업, 환경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70여건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발표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과 도입에서 이룩한 성과자료들을 소개하였다.

《나노칼시움고활성비타민피막알약제조에 대한 연구》, 《강력초음파처리기》 등 나노재료의 제조와 측정, 응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한 첨단과학연구성과들과 경제건설에 도입되여 은을 내고있는 제안들을 반영한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에는 초림계탄산가스류체나노립자제조기, 나노콩크리트강화제, 용량식나노변위측정기, 나노금키토산수, 나노은치약 등 경제적의의가 크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70여종의 첨단나노기술제품들과 도서들이 출품되였다.

이 기간 《나노기술제품규격제정과 품질인증》, 《나노기술제품생산과 판매》라는 제목으로 강습들이 진행되였다.

13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있은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순천구두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공장을 령도업적단위답게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내려가 질린 문제들을 풀어주며 종업원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들이대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사상교양거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놓았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실을 현대적으로 꾸린데 이어 당의 사랑이 로동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정양소를 보란듯이 새로 건설하여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공장에서는 직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장정숙

조선로동당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니콜라이 보그다놉스끼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무관이 전송하였다.

몽골국방성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치메도르쥐 쏘쏘르바람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국방성대표단이 1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군관들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인민무력부장이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박영식동지는 13일 의례방문하여온 니콜라이 보그다놉스끼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오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알렉쌘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쎄이 바르투쇼브 대사관 무관이 참가하였다.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

뜨거운 혈육의 정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대할 때마다 평범한 영예군인을 위해 지성을 다한 잊지 못할 한 일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동대원구역송배전소 소장 장철오동무입니다.

몇해전 6월 우리 가정을 찾은 그는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고나서 저에게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야 한다고 교무해주었습니다.

저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였을 때에는 바쁜 속에서도 저를 차에 태워 여러 병원들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치료대책을 세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해와 함께 귀한 약재와 여러가지 식료품, 과일을 가지고 찾아와 저의 가족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부부는 저의 가정을 자주 찾아와 집안팎도 깨끗이 꾸려주고 저의 하루 세끼 식사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병이 도져 앓는다는것을 알고는 의사까지 데리고와서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밤을 새워가며 간호해주었습니다.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장철오동무를 볼 때마다 이런 일군들을 키운 우리 당의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군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저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칠 결의를 가다듬군 합니다.

동대원구역 동신3동 7인민반 박창록

미덕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제가 시중군 읍 87인민반에서 사는 한춘희녀성과 시중군상업판리소 로동자 고영옥녀성을 알게 된것은 10여년전입니다.

영예군인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온 제가 뜻하지 않게 병이 도져 심하게 앓고있는데 문득 그들이 집으로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인차 찾아와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병에 포로될세라 신심을 안겨주고 교무도 해주며 병치료를 적극 방조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혈육의 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병치료에 좋은 보약들을 가지고 때없이 걸음을 하였고 어쩌다 생기는 식료품마저 저에게 맛을 보이고서야 마음을 놓군 하였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태여났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사랑을 기울여준 그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심한 어머니같고 친누이같은 그들이 저에게 기울인 지성에 대해 쓰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일군들도 군인민병원과 가까운 곳에 새 집을 지어주고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기재들도 갖추어주면서 육친의 정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서성구역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였는데 간호장 김현희동무를 비롯한 그곳 의료일군들과 간호원들의 정성과 사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이런 사랑들이 있어 우리 영예군인들의 삶은 활짝 꽃펴나고있습니다.

시중군 읍 28인민반 김영일

당 정 책 관 철 에 서 창 조 된 훌 륭 한 기 풍

메탄가스발효액을 리용하는 무토양남새온실을 건설하고 덕을 보고있는 홍원군 읍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홍원군 읍협동농장에 건설된 메탄가스발효액을 리용하는 무토양남새온실이 날을 따라 큰 은을 내고있다.

이 온실은 남새온실과 축산기지, 메탄가스생산공정, 큰단백풀재배 및 양어장이 하나의 생산고리로 이어져있으며 작물재배가 톱밥, 벼겨와 같은 기질에서 메탄가스발효액에 의해 진행되는 특색있는 온실이다. 농장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８００㎡의 이 온실에서 지난해 9월말부터 올해 9월말까지만 하여도 근 ３０t의 남새를 수확하였다고 한다. 결국 해마다 정보당 ３００t의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우리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와 경험을 마련한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말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동해지구의 크지 않은 농장에서 이처럼 훌륭한 온실을 건설하여놓고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일군들이 당정책을 어떤 높이에서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뚜렷이 시사해주고있다.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누구나 우리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기준은 당정책이라고 말한다.

하다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당정책관철전에서 우리 일군들은 사색과 실천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덩지큰 단위도 아니고 남달리 토대가 든든하지도 못한 농장의 실정에서 세계적추세에 맞는 멋쟁이온실을 건설할것을 발기하고 실천한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이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지난해 농장에서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남새온실건설문제를 토의할 때였다.

관리위원장의 눈앞에는 며칠전에 돌아본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수경온실들의 희한한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다. 영양액에 의한 무토양재배가 토양재배에 비해 생산실적이 훨씬 높다고 하던 그곳 연구사들의 목소리도 귀전에서 떠날줄 몰랐다.

그는 농장실정에 맞는 무토양남새온실을 건설할 방도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참고도서들을 탐독하였다. 그 과정에 알게 된것이 바로 메탄가스발효액을 리용하는 무토양남새온실이였다. 세계적으로도 무토양재배에 의한 무공해남새생산기술과 에네르기와 물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메탄가스발효액을 리용하는 생태농업이 광범히 도입되고있는 사실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의 발기에 농장일군들모두가 깜짝 놀랐다. 농장의 형편에서, 또 당장 모내기전투도 시작되겠는데 그런 높은 수준의 온실건설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단위들에서처럼 파악있는 토양온실을 먼저 건설하고 무토양온실문제는 후에 조건이 마련된 다음 보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럴만도 하였다. 어디서나 토양을 리용하는 토벽식박막온실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또 무토양남새온실을 건설할만 한 기술, 자금, 로력 등 모든것이 부족했다.

하지만 관리위원장의 심장은 이렇게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물론 토양온실을 건설해도 남새생산을 할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온실의 기준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만족하게 돌아보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수경온실과 같은 현대적인 온실건설을 10년, 20년후에야 두고볼 일로 여긴다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며 일하는 일군의 자격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온실남새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당정책적요구, 모든 령역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해가며 눈부시게 비약하는 오늘의 우리 시대의 요구였다. 그리고 축산을 발전시키고 메탄가스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도 다같이 관철할수 있는 열쇠 또한 그 길에 있었다.

일군들은 경직된 사고방식과 낡은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당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방법론과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이 뼈속깊이 되새겨졌다.

관리위원장의 립장은 확고했다.

《이왕 품들여 온실을 건설하는바에는 협동농장남새온실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멋쟁이온실을 일떠세웁시다. 우리는 항상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실천하는 습벽을 붙여야 합니다.》

이어 관리위원장은 농장에 이미 축산토대가 갖추어져있는 조건에서 메탄가스발효액을 리용하는 무토양남새온실을 건설하면 어떤 실리를 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도 구체적인 수자를 안받침하여 알려주었다.

농장일군들이 각성되여 결의해나섰다. 모두가 이 사업을 로력이나 자금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문제로 받아들이였다. 남새온실을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건설하자.

관점에 따라 일본새가 달라지기마련이다. 우리 당정책을 최고의 높이,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할 하나의 의지안고 떨쳐나선 일군들은 걸린 문제들을 맡아안고 발이 닳도록 뛰였다.

군당위원회에서도 이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들의 창조적인 사색과 무한한 열정에 감복되여 도와나서는 단위도 있었다.

여기에 고무된 농장일군들은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더욱더 신심에 넘쳐 온실건설을 립체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때 특별히 힘을 넣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당면한 영농전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것이다. 일군들은 보수분조성원들로 기본건설조를 무었다. 그리고 농장의 당, 행정일군들과 작업반 당세포비서들로 작업조를 조직하고 오전작업시작전과 하루작업이 끝난 이후에 건설전투를 벌리게 하였다. 또한 매일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당, 행정사업총화를 온실건설현장에서 간단히 하고 많은 시간을 건설에 돌리도록 하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만짐을 지고 달리는 손희경, 김선숙동무들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의 투쟁기풍은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농장원들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온실건설장으로 달려와 땀을 바쳤다.

다음으로는 온실건설이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한것이였다. 설계로부터 시공, 온실운영준비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와 생물공학분원의 일군,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진행하였다.

메탄가스발효액을 리용하는 무토양남새온실은 축산기지와 남새온실, 메탄가스생산공정이 결합되고 방울식관수체계까지 도입된 온실로서 과학기술적요구가 간단치 않았다. 이런 온실건설을 처음 해보는 조건에서 전문기관 연구사들과의 사업은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농장일군들은 국가과학원에서 파견해준 연구사들인 황길성, 신경진동무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면서 그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온실건설을 기술적요구대로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그리고 책임성높고 온실남새재배경험이 많은 농장원들을 미리 선발하여 그들이 짬시간마다 연구사들에게서 온실운영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배우도록 하였다.

품을 들인것만큼 결실도 큰 법이다.

마침내 다섯달만에 포기마다 방울식관수체계를 통하여 메탄가스발효액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특색있는 온실이 성과적으로 건설되였다.

온실의 우월성은 날을 따라 힘있게 과시되였다. 메탄가스발효액에는 온실남새생산에 필요한 필수다량 및 미량원소들이 충분히 들어있어 비료가 없이도 생산물의 량과 질을 훨씬 높일수 있었다. 이런 메탄가스발효액이 매일 1t이상 생산되는데 이것을 무토양남새온실에서 리용하고도 남아 토양온실에도 공급해주고있다. 그리고 날마다 생산되는 ７．５㎥의 메탄가스와 １００여kg의 메탄가스발효찌끼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또한 토양을 다루지 않기때문에 련작피해를 쉽게 극복할수 있으며 김매기, 두둑짓기, 토양갈이와 같은 공정이 필요없게 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재배환경이 깨끗해서 좋았다.

만약 처음 온실건설을 시작할 때 일군들이 긴장한 경제사정에 포로되여 이것이 모자라오, 무엇이 걸렸소 하면서 목표를 낮게 세웠다면 오늘과 같이 정책적요구, 시대적요구에 맞는 훌륭한 온실을 일떠세울수 없었을것이다.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받을만 한 좋은 점은 만족을 모르는 일본새이다.

간혹 우리 주위에는 큰 품을 들여 창조물을 일떠세운 다음에는 그것으로 당정책을 관철하였다고 만족해하며 그후에는 관심을 적게 돌리는 일군들도 있다.

당정책을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한다는것은 궁극적으로는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이 덕을 보지 못하는 창조물은 아무리 억만금을 투자하여 번듯하게 건설해놓았다고 해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당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온실남새농사를 더 잘하여 농장원들이 실지로 큰 덕을 보게 하기 위해 만족을 모르고 애쓰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지난해 １２월이였다. 품들여 건설한 무토양온실에서 토양온실보다 １．７배나 많은 오이를 수확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쁨은 컸다. 한겨울에 신선한 오이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농장원들을 보며 일군들도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농장에 새로 건설한 남새온실을 돌아보신 소식에 접한 그날 일군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온실을 잘 건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온실농사를 잘하여 군인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길수록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결정적으로 온실남새생산을 늘여 농장원들이 톡톡히 덕을 보게 하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재배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온실남새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묘안을 찾아 토의를 거듭하였다.

만족을 모르는 일군들의 일욕심은 그들의 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어 좋은 의견이 나왔다.

온실에 시험구를 정하도록 한 사실을 놓고보자.

아무리 좋은 종자와 농약이라고 하여도 자기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덕을 볼수 있었다.

이로부터 농장일군들은 온실재배공들의 착상대로 온실안에 여러개의 시험구들을 정해놓고 평당 포기수와 품종, 농약효과를 비교하면서 다수확방도를 찾도록 하였다.

좋은 방도들이 나왔다. 실례로 통배추재배를 할 때 일반적으로 평당 １４포기의 모를 심었다면 시험구에는 포기수를 더 늘여보았다. 결과 배추생산을 １３０％이상 늘일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되였다. 농약효과시험도 마찬가지였다. 한가지를 쳐줄 때와 여러가지를 혼합할 때 어느것이 더 벌레잡이효과가 높은가를 비교시험하면서 무토양남새온실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재배방법들을 찾아내였다.

년중 온실을 비우지 않고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재배계단조직방안도 이렇게 나오게 되였다.

온실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오이, 통배추, 수박 등을 생산하였다. 즉 오이모를 9월초에 옮겨심고 １０월부터 １２월초까지 수확하였다. 통배추모를 １２월초에 옮겨심고 2월 중순경에 수확하였다. 이때 사이그루로 쑥갓을 심어 1월 중순경에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2월 중순에 오이모를 옮긴 후 4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생산하였다.

특히 여름철온도조건에 맞게 작물배치를 잘하여 큰 덕을 보았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수박모를 6월 중순에 옮겨심고 8월말에 수확하였다.

이렇게 생산한 근 １０t의 수박을 농장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고 분조마다 공급해주었다. 뒤이어 또다시 오이모를 옮겨심었다. 결국 사철 온실을 비우지 않고 갖가지 남새를 생산할수 있었다.

온실을 잘 건설하였다고 해서 절로 생산이 오르는것은 아니다.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들이 기술실무적으로 든든히 준비되여야 높은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농장일군들은 이 점을 중시하고 온실재배공들에 대한 기술학습에 힘을 넣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를 초빙하여 세계적인 남새온실운영추세와 여러가지 작물재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하는 강의를 받게 하였다. 또한 농장일군들이 온실을 찾을 때마다 재배공들에게 임의의 작물의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또 가르쳐주어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싶은 문제가 있다.

기술학습열의와 일군의 실력문제이다. 이곳 온실재배공들은 관리위원장을 가리켜 사색가, 실력가라고 부르며 그가 온실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군 한다.

걸린 고리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줄뿐만아니라 해박한 지식과 진지한 탐구로 재배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실무적문제들에도 막힘없는 대답을 주기때문이다.

지난 2월 통배추재배를 할 때였다. 아무리 좋은 농약을 뿌려주어도 진디물피해가 가셔지지 않았다. 재배공들이 안타까와하고있는데 이곳을 찾은 관리위원장이 농약을 찬물이 아니라 더운물에 풀어 써보라고 귀띔해주었다. 그렇게 해주니 신기할 정도로 진디물피해가 없어졌다. 진디물의 생물학적특성을 깊이 연구하여 찾아낸 구제효과를 높일수 있는 좋은 방도였다.

끝없는 인민사랑으로 일관된 우리 당정책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도 빠짐없이 결사관철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려는 이곳 일군들의 일욕심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였다.

온실곁에는 메탄가스발효찌끼를 리용하여 년간 ２００여t의 큰단백풀을 생산하는 수백㎡의 재배장이 있다. 올해 봄부터는 여기서 수백마리의 메기도 기르고있다. 또한 축산기지와 온실을 이어주는 건물의 공간에는 미꾸라지서식장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농장의 탁아소, 유치원에도 보내주고 로인들의 건강증진에도 리용하고있다. 온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발효찌끼를 버섯생산에도 쓰고있다.

이곳 농장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에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것이 있다.

동무는 당정책을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하였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가.

이 량심의 물음에 자신있게, 긍지높이 대답할수 있는 일군들이 많아야 부강조국건설이 앞당겨지고 이 땅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올것이다.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오려는 위대한 우리 당의 높은 뜻이 하루빨리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 농장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

강계제２사범대학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강계제２사범대학에서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교정에 들어서면 산등성이에 세워진 여러대의 풍력발전기들과 3층건물지붕에 설치한 태양빛전지판들이 인상깊게 안겨온다.

대학에서는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보내준 풍력발전기들과 많은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여 교육사업은 물론 기숙사, 리발실, 미용실, 옷수리소 등 편의시설들에 요구되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고있다.

종합배전반실에는 풍력발전기배전반, 태양빛전지배전반, １０여개의 축전지, 2대의 역변환기가 갖추어져있다. 설비들은 비록 크지 않아도 대학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대학의 교원들은 풍력 및 태양빛전지결합형발전체계를 구성하고 전기를 최대한 효과있게 쓰기 위한 교차생산방법을 받아들였다.

대학에서는 풍력과 태양빛으로 ４０여개의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학부, 강좌사무실들, 외국어시청각실, 콤퓨터실, 물리실험실들에 전기를 보내주고 저녁에는 대학구내와 식당, 기숙사에 조명을 보장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지금 기숙사의 ６０여개 호실들에 조명을 보장하고있으며 다음해 봄까지 물가열기를 설치하여 기숙사생들이 리용하는 목욕탕의 물을 덥히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있으니 그만큼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하는셈이다.

풍력과 태양빛은 무진장한 에네르기원천이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３０년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과자직장 제２작업반 선동원 리명실동무

리명실동무가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과자직장 제１작업반의 선동원이 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작업반원들앞에 나섰다. 처음으로 사람들앞에 나서는 그를 작업반원들이 호기심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가 밤새워 준비한 선동자료를 읽어내려갈 때였다. 어디선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책에서 보았는데 미나리가 건강에 그렇게 좋대.》

《그 책을 나도 좀 보게 해주렴.》

선동자료와는 인연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리명실동무의 얼굴은 앵두처럼 빨개졌다. 그날 저녁 그는 공장의 초급당일군을 찾아갔다.

《힘으로 하는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하겠는데 선동원만은… 더구나 남보다 키도 작은 내가…》

말끝을 흐리는 리명실동무를 보며 초급당일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가 작업반원들의 심장을 울리지 못하는 선동사업을 했다는것이 첫눈에 알렸던것이다. 그날 그 일군은 천리마시대의 영웅선동원들에 대하여 말해주면서 진짜배기선동원이 되자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사들과 선동원들은 조직화된 중요한 선전선동력량입니다.》

당조직의 믿음에서 힘을 얻은 리명실동무는 드높은 각오와 신심을 안고 발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선동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우결함을 분석하군했다. 하나의 선동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밤에 수십리 길을 걷기도 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의 성격과 취미, 구체적정황에 맞게 화선식선동을 능란하게 벌려나갈수 있는 묘리를 하나하나 터득하게 되였다.

그의 선동사업이 차츰 은을 내기 시작했다. 전투장마다에서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그의 화선식선동은 작업반원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것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작업반원들은 일 잘하고 노래 잘 부르며 아는것이 많아 선동사업에서 막힘이 없는 리명실동무를 우리 선동원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선동사업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

이신작칙, 이것은 그의 선동활동에서 핵을 이루고있다.

작업반앞에 긴급한 생산과제나 어려운 과업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리명실동무가 있었다.

작업반앞에 방대한 생산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 작업반원들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였다. 고열로 앓고있는 그를 집에 눕히고 온것이 방금전인데 그가 손에 메가폰을 들고 현장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작업반원들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생산이 긴장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엿보일 때면 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동나팔수가 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해제낀 미더운 선동원이였다. 우린 선동원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쩔려고 그러는가고 작업반원들이 걱정하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쩐지 오늘따라 어버이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군요. 5년전 개건확장된 공장에 오시여 우리들이 생산한 과자의 맛까지 보아주시며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던 장군님이 아니신가요. 우리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맛좋고 영양가높은 과자를 더 많이 생산하자요.》

그리고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가 사랑하는 노래 《불타는 소원》이였다.

작업반원들은 모두 격동된 마음으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진실하고 소박한 그의 선동은 작업반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작업반원들은 선동원처럼 일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맡겨진 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의 이런 화선선동의 나날속에 작업반은 지난 ３０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리명실동무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당초급선전일군이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남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그에게 있어서 작업반은 한가정이였고 작업반원들은 친혈육이였다.

작업반에는 부모가 없는 처녀가 있었다. 사람들과 좀처럼 섭쓸리기 싫어하고 맡은 일도 잘하지 않는 그를 두고 사람들속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갔다.

어느날 퇴근길에 그의 집을 찾은 리명실동무가 밤깊도록 그를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후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작업반원들은 《사람구실을 하기는 틀렸어.》라고 하며 그 한사람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명실동무는 그와의 사업을 단념하지 않았다. 세상에 병든 자식을 탓하는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리동무와의 사업에 오만자루의 품을 넣었다. 자기가 입으려고 건사해두었던 옷도 가져다주었고 때로는 집에 데려다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주고 정을 주었다.

리명실동무 (왼쪽에서 두번째)

그가 맡은 일에 재미를 붙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을 때에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지지해주고 내세웠다.

그후 그는 작업반에서 없어서는 안될 혁신자가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작업반에는 이러저러한 일로 사람들의 말밥에 자주 오르군 하는 한 종업원이 있었다. 원래 남을 잘 도와주는 좋은 점이 있는 그가 이렇게 된것은 자식문제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된 리명실동무는 그 종업원의 딸을 위해 걸음도 많이 걸으며 속도 썩이였다. 솜옷과 식료품을 준비해가지고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있는 그의 딸을 찾아갔다. 그후에도 자기 가정에서 절약한 식량을 가지고 그 종업원의 집을 자주 찾으며 남다른 정을 기울였다. 그후 혁신자가 되여 공장속보판에 이름과 함께 사진이 나붙던 날 그는 리명실동무를 찾아왔다.

《선동원, 그동안 나때문에 속 많이 태웠지. 내 힘자라는껏 일할 생각이야.》

잘못을 저지를세라, 걸음을 헛디딜세라 사랑을 주고 정을 주는 선동원의 뜨거운 인정미가 그 종업원의 가슴을 울렸던것이다.

이렇게 그는 작업반원들을 귀중한 혁명동지로, 혈육으로 여기고 다심한 어머니의 정을 기울여 혁신자로 키웠고 작업반을 화목한 집단으로 만들었다.

오늘 과자직장은 ２중３대혁명붉은기, ２중２６호모범기대영예상직장으로 이름을 떨치고있다. 이 나날에 리명실동무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얼마전에는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 되였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과자직장 제２작업반 선동원으로 일하고있다.

스무살 처녀시절에 선동원이 된 그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선동원의 첫걸음을 내짚던 ３０년전의 그때처럼 활력에 넘쳐 충정의 한길을 억세게 걷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손영희

제3차 전국로동자롱구경기대회 폐막

9일에 개막되였던 제3차 전국로동자롱구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이번 롱구경기대회에서 각 도의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과 강의한 투지, 고상한 도덕품성을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을 보여주었다.

경기대회에서는 평양시팀이 종합 1등을, 함경북도팀과 철도성팀이 각각 종합 2등과 3등을 하였다. 남자롱구경기에서는 철도성팀이 1등을, 평양시팀과 함경북도팀이 각각 2등, 3등을, 녀자롱구경기에서는 평양시팀이 1등을, 함경남도팀과 함경북도팀이 각각 2등, 3등을 쟁취하였다.

폐막식이 1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직맹일군들,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순위가 발표되고 우승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메달 등이 수여되였다.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전국로동자롱구경기대회가 우리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여 체육강국을 건설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로동자들이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물길굴확장공사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자들이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발전소건설자들은 허리치는 물속에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며 물길굴확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발전소건설지휘부 일군들은 들끓는 지하막장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막장조건과 암질상태에 맞는 기술지도와 자재보장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물길굴건설자들은 한몸이 그대로 착암기가 되고 동발이 되여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매일 공사과제를 110%이상 해제끼고있다.

불리한 작업조건속에서도 건설자들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굴진공들은 천공위치를 바로 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파효률을 높여 천연암반을 쭉쭉 밀고나가고있으며 동발공들은 기술적요구에 맞게 동발과 방틀을 불이 번쩍 나게 세워가고있다.

운반공들도 충천한 기세로 버력처리를 다그쳐 막장을 넓혀나가고있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15일(일요일) 오전에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 리명수체육단, 회불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탁구 녀자복식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겨레의 다함없는 칭송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을 새로운 기적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맹세를 굳게 다지며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적풍모와 그이의 령도를 받는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사회학자는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업적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분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파학적통찰력으로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하시고 그것을 당건설과 활동에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대구에서 사는 언론인은 최근 어느 한 강연회에서 청중을 향해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서 하신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은 모두 인민이라는 말로 일관되여 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인민으로 일관된 표현들속에 대를 이어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그이의 인민관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부산의 한 정치인은 모임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풍모를 그대로 계승하신 위대한분이시라고 마음속진정을 터치였으며 한 정치학교수는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세계는 그분의 위인적풍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진정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라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칭송하는 목소리들도 격조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해외려행기간에 우리 나라 기록영화를 본 서울의 한 기업가는 이북민중 누구나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어머니품이라고 부르고있는데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민중이 왜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이 정책작성에서 민중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의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정치를 펴나가기때문이다. 세상에 수많은 당들이 있지만 이북의 조선로동당처럼 민중의 신뢰와 신망을 받는 당은 없다. 때문에 오늘 세인이 조선로동당을 가장 위대한 민중적당이라고 칭송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에는 《민중속으로! 이것은 이북당파 정권의 가장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모습이며 이북식 민중사회가 낳은 특유한 풍경이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중만세, 민중제일을 선언한 위대한 철학이다. 이북은 이 독특한 민중우선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그래서 조선로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라는것이 이북민중의 한결같은 립장이다.》라는 글이 게재되여 만사람을 격동시키였다.

서울과 인천의 지식인들은 《조선로동당은 사회성원들의 정치적생명과 삶의 보호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고있다. 하기에 이북민중은 당을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남의 정당들은 민중은 안중에도 없고 극소수 재벌들의 돈주머니를 위해 그들의 손발이 되여 민중말살의 정치를 펴고있다. 이러한 반역정치를 일삼는 세력이 민중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히게 되는것은 력사가 보여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한 민주인사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절세의 위인을 진두에 높이 모신 여기에 조선로동당이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다.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이북민중뿐아니라 우리 이남민중의 심장속에도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깊이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삼천리강토를 둘로 갈라놓은 분렬의 장벽도 그 위대한 불빛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언론들은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만복을 누리며 보람찬 생활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전하는 글들을 련일 게재하고있다.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와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와 같은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있다고 소개하였다.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북에는 가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나붙어있고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속에 모두가 활기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공화국의 품만이 온 겨레가 함께 안겨 살 은혜로운 품이다. 하루빨리 통일렬차를 타고 북으로 가고싶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크나큰 로고에 의해 북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여 민중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날것이다.》라는 글들이 실리고있다.

서울의 한 정치학전문가는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의 〈전화위복〉의 창조물은 북조선이 미국과 서방에 안긴 또 한 빈의 미싸일공격과 같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과 과학기술전당의 건설은 이북민중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해가는 인민의 락원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위력한 대답으로 된다.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북의 〈인권〉에 대해 떠들어도 현실은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해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한 건축가는 《이북의 건축예술이 놀랍게 발전하고있다.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는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의 호화주택은 모두 현대건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건축에서 패권을 쥘 이북의 의지이며 실천이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호화주택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의 모습에서 최대의 락을 찾고계시는 김정은령도자의 고결한 풍모이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드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실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라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확신이다.

김 철 남

본전도 못 찾을 호전광의 잡소리

최근 미륙군참모총장 마크 밀레이가 워싱톤에서 열린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낯간지러운 넉두리를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는 남북조선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통일방식은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평화통일》을 바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조선반도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전세계에서 중무장한 병력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느니, 남북의 소규모충돌이 대규모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비극적인 일로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거짓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두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소리겠지만 그것은 본전도 못 찾을 소리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수십년동안 민족사상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유독 우리 민족만이 아직까지 지난 세기의 낡은 랭전구조와 분렬의 치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누구때문인가.

미국때문이다. 조선반도를 인위적으로 분렬시키고 력사적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며 음흉하게 놀아대고있는 미국은 통일의 극악한 방해군, 우리 민족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전에 하나된 조국에서 자기의 찬란한 문화와 력사를 자랑하며 민족번영을 누릴수 있었을것이다.

미호전광이 평화통일을 입에 올리는것은 수십년간 통일을 갈망해온 우리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 우롱이 아닐수 없다.

밀레이가 조선반도를 전세계에서 중무장한 병력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면서 남북의 소규모충돌이 대규모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비극적인 일로 될것이라고 한것도 호전광들이 할 소리가 못된다. 그는 토론회에서 지난 8월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도발》나발을 불어대며 아시아에서 직면한 미국의 도전은 《북조선의 위협》이라고 궤변댔는데 그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역선전나발이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시켜놓고 항시적인 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주변지역처럼 미국의 침략무력이 집중배치되여있는 곳은 없다.

미지배층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는것을 세계지배전략실현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간주하고있다. 미국은 침략적대조선전략에 따라 남조선을 군사적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나아가서 전쟁의 불길을 대륙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긴장격화의 장본인, 침략의 원흉인 미국이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짓이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이야말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을, 평화가 아니라 긴장격화와 북침전쟁을 꾀하고있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하다면 미군부우두머리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너스레를 떤것은 무엇때문인가. 거기에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은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여론들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장본인인 미국이 하루빨리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대국들을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과 세력권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 무력을 증강하고있는 미국을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게 하고있다. 미국에는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고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할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래서 미군부우두머리는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저들이 바라지도 않는 조선의 《평화통일》을 외워댔것이다. 저들도 평화를 바란다는 냄새를 피워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응하지 않는 저들의 범죄적속심을 가리우고 우리 제안의 정당성을 약화시켜보려고 꾀한것이다.

그러나 그따위 가을뻐꾸기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의 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정세를 격화시키지 말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응해나와야 한다.

리 현 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회피해보려고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얼마전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는 어느 한 토론회마당에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이 순서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론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또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론의하는 회담도 수없이 하였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였다.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깔려있다.

1950년대에 시작된 조미교전판계때문에 1980년대에 핵문제가 발생했다는것을 모를리 없는 미국이 비핵화가 먼저 되여야 평화협정을 체결할수 있다고 순서타령을 하는것은 결국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력사적경험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여 미국이 더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가능해질것이다.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우리의 선의를 오판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후과가 파여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력사에 역행하는 《국정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남조선 각계에서 투쟁 고조

남조선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반대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10월 31일 서울 각지에서 력사를 외곡하고 친일파 독재를 찬미하는 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 단체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력사교과서《국정화》를 저지하는 연세인모임소속 대학생들과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학생들로 구성된 《국정화》저지대학생대표자련석회의 성원들,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와 마로니공원, 룡산에서 각각 집회들을 가지였다.

그들은 수만명의 대학생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고있다고 하면서 옳바른 력사교육을 할수 없게 하는 당국의 처사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종북》, 《오염된 세대》로 몰아대고있지만 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집회들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에 나섰다.

청계천에 이르자 그들은 대학생공동집회를 가지고 력사에 역행하는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소속 학생들도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반대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원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정화》실현으로 외곡된 력사를 배우게 될 당사자들은 바로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옳바른 력사를 지키기 위해 《국정화》저지운동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전교조, 력사교수모임 등도 광화문광장과 력사박물관앞에서 각각 《국정화》반대집회를 가지였다.

이날 공안당국은 63개 중대 5 000여명의 경찰병력을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폭압분위기를 고취하였다.

날로 고조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끝끝내 력사교과서《국정화》확정고시를 강행하자 각계의 투쟁은 더욱 맹렬히 전개되였다.

3일 《정부》청사와 광화문광장일대는 집권세력의 반인민적, 반력사적행위를 단죄하는 성토장으로 되였다.

민주로총, 전농, 전국빈민련합, 진보련대, 《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강행한 력사교과서《국정화》확정고시는 력사쿠데타라고 규탄하였다.

교과서《국정화》를 통한 력사외곡은 일본의 력사외곡파 다를바 없다고 단체들은 단죄하였다.

지역과 년령, 계층에 관계없이 절대다수의 민중이 《국정화》를 반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무시한 《정권》을 반대하여 11월 14일 민중이 총궐기할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중의 의사를 거역하고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의 태도는 헌법에 전면배치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친일파 독재를 감싸기 위해 《정권》이 민중파 전쟁을 선포한 11월 3일을 치욕과 비극의 날로 기록하고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백지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퇴직교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독립운동단체들이 《친일, 반민족력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들을 채택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을 비롯한 야당들은 기자회견 등을 가지고 《정부》의 《국정화》고시강행은 그자체가 독재라고 규탄하였다.

민중을 분렬시키는 현 《정권》에 맞서 더욱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야당들은 밝혔다.

각계의 항의기운에 질겁한 경찰청은 종합경비대책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산하 지방경찰병력을 동원하여 11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을 진압할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아프리카, 에짚트인사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가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하여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와 남아프리카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의 전체 성원들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정전협정은 그대로 존재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인 사건도 순간에 전쟁의 불씨가 되여 즉시에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상태에 있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하루속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반도에 지속적이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에짚트의 알 마싸으신문사 부주필 리프아트 할리드가 5일 《평화는 안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평화가 보장되여야 인민들의 안전과 번영, 나라의 발전이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얼마전 성명을 통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항시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조선이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나오는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는 전쟁까지 초래할수 있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

이 란 에 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8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아라크에 있는 핵반응로를 더욱 현대화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서방렬강들과의 핵관련회담에서 핵활동과 관련한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수호한것은 나라의 자랑으로 된다고 밝히고 이란은 앞으로도 우라니움농축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7일 이란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평화적핵활동을 강화해나갈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핵활동의 새시대에 들어선 이란은 우라니움농축에 대한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핵연료생산 및 폐연료봉처리를 순조롭게 진행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란정부는 평화적핵기술을 농업과 보건분야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수리아에서

수리아정부군이 최근 테로반대투쟁에서 전과를 확대하고있다. 8일 정부군은 데이르알 주르에 있는 공군기지를 습격하려던 테로분자들을 소멸한데 이어 나시브 다깁과 지라, 호와이제트 무라이예호 시들에서도 수십명의 테로분자들을 소탕하였다. 사나통신은 이번 전투들에서 정부군이 약 60명의 테로분자들을 소멸하였다고 전하였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수상 나렌드라 모디가 6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금 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데 맞게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제개혁을 다그치고 민족화폐의 가치를 높이며 주민들에 대한 과학기술보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로조대회 위원장이 7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이 남아프리카농산물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비렬한 시도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는 남아프리카로조대회가 곧 미국의 불순한 기도를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조직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칼보쟈에서

칼보쟈정부가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코르 와트유적을 국유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해부터 유적운영에 필요한 인원보장과 비용부담, 참관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입 등을 국가가 맡아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

메히꼬에서

메히꼬외무성이 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사법성의 부당한 결정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날 미사법성이 적수공권의 메히꼬인을 죽인 미군살인마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지난 2010년에 8명의 미군순찰병들은 국경지역에서 메히꼬인에게 탈려들어 전기충격을 가하고 모두매를 안겨 무참히 살해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에서 반이스라엘시위

왜 《퍼구슨효과》를 운운하는가

최근 자국내의 여러 도시들에서 범죄가 늘어나고있는 원인을 미국의 한다하는 사법당국자들속에서 《퍼구슨효과》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이자들이 운운하는 《퍼구슨효과》란 지난해에 일어났던 퍼구슨사태이후 경찰들이 동영상에 찍히는것을 우려하여 몸을 사리는 현상을 의미하고있다. 즉 경찰이 자기의 직무수행과정에 발로될수 있는 이러저러한 《실수》들이 언론계에 공개되고 그로 하여 비난과 추궁을 받을것을 우려하면 나머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가리우기 위한 터무니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8월 미국의 퍼구슨시에서는 백인경찰이 비무장한 18살 난 흑인청년에게 6발의 총탄을 퍼부어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였다. 극도의 인종주의에 물젖은 백인경찰의 야수적인 만행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 아닌 《죄》로 미국사회에서 갖은 멸시와 학대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흑인들의 커다란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들을 더욱 격분케 한것은 백인경찰이 아무 죄도 없는 흑인을 살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비호두둔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에 대한 기소마저 기각시킨 미당국의 부당한 처사였다.

당시 《백인경찰관의 불기소처분에 항의한다》, 《미국에는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다》, 《우리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정의를 원한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거리에 떨쳐나선 흑인들의 대중적항의시위는 퍼구슨시는 물론 워싱톤과 뉴욕을 비롯하여 미국전역에로 확대되여갔다.

이것은 지난해 온 미국땅을 그야말로 밑뿌리까지 세차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백인경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퍼구슨사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살면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모든 흑인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인종주의국가 미국에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다.

《퍼구슨효과》에 대하여 운운하는자들은 당치않게도 퍼구슨사태이후 경찰들이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경찰들이 흑인들에게 파도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담은 여러 동영상들이 인터네트상에서 널리 퍼지고있는것이 이러한 편향을 더욱 유발시키고있다고 력설하고있다. 《범죄자들인 흑인들은 날치고있는데 그를 통제해야 할 경찰들은 후과가 두려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본질상 흑인인권옹호운동과 진보적인 언론계의 활동에 대한 엄중한 외곡이며 로골적인 도전이다.

이자들의 목적은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흑인들의 정의로운 투쟁과 이를 지지하는 언론계의 응당한 활동을 사회적《무질서》와 《범죄》를 증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온갖 범죄를 산생시키는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제도적병집을 가리우고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딴데로 돌리자는데 있다.

미국에서 횡행하는 범죄의 근원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미당국이 력사적으로 묵인조장시킨데 있으며 너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수 있다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만연된데 있다. 썩고 병든 사회제도를 통채로 들어내지 않는 이상 미국은 언제 가도 《범죄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을수 없다.

이번에 미사법당국자들이 《퍼구슨효과》에 대하여 운운한것은 그들자체가 《흑인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짙은 인종》이라는 흑인멸시사상에 뼈속까지 물젖은데 있다. 어릴때부터 인종주의가 만연하는 썩어빠진 미국사회로부터 백인지상주의교양과 영향을 받은 그들로서는 달리 말하고 행동할수 없는것이다.

사실들은 미국의 사법당국자들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행위들을 정당화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사법계의 상층인물들부터가 이 모양이니 그밑에서 일하는 한갓 경찰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런자들의 비호두둔속에 오늘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백인경찰이 흑인소녀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또다시 공개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주에 있는 한 학교강의실에 뛰여든 경찰은 부당한 구실로 흑인소녀가 공부하는 책상을 뒤집어엎은 다음 다짜고짜 그를 둘러메쳤다고 한다. 경찰은 발버둥치는 흑인소녀를 질질 끌고다니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나라의 출판보도물들과 사회단체들은 백인경찰의 란폭한 행위에 대해 일제히 전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하였다.

현실은 바로 이러하다. 미사법당국이 《범죄방지》라는 명목하에 자기의 권력을 마구 람용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범죄들을 감행하는 주제에 그 무슨 《퍼구슨효과》라는것을 운운하는것인가. 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이제 더이상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며 흑인들을 모독한다면 그것이 미국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없다.

안 철 권

7-5117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